



## 충남인터뷰 - 충청남도의회

### 열린마당

문화와 복지로 열어나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상상하며...



오 배 근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약력 : 인천체육대학 체육학과 졸업,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8대 충청남도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계기?

제가 태어나 60여년을 함께한 이곳, 홍성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토대로 제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다 살기 좋은 홍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다. 특히 내포신도시 건설을

통해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미래 충남 성장의 동력이 될 우리 홍성군을 '희망의 도시, 미래의 첨단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제8대 충남도의회 때 '충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내포신도시 개발과 도청이전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한 것이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8대 농수산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농촌소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농업·축산업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번 제10대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위원장을 맡아 우리 도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일조했던 것과 특히 작년 8월에 충남 서산, 당진 지역에 교황님이 방문하시어 충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도민이 한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문복위 위원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문화·복지·체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와 복지혜택으로부터 도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저소득·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가족정책, 보육정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 보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오랜 체육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홍성을 생활체육의 메카로 만들고, 나아가 충남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2016년 전국체전이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도가 상위 입상은 물론 성공적 개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이 강조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10월 “문화로 도민에 행복을, 충남에 미래를”이라는 문화비전은 선포했다.

현충남의 문화 기반은 문화시설 수, 문화예술 활동하는 예술인들, 문화 사업 등 모든 것이 열악한

편이다. 도내 곳곳에 산재된 문화재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도에서는 문화 비전 실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9,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 문복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더불어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시설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화비전 선포취지는 문화예술의 향유 차원을 넘어 충청남도의 실천의지를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충남의 르네상스 즉, 충남의 문화융성시대를 선포한 것이 큰 의미이다.

### ▲ 홍성군에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먼저 내포신도시와 홍성역간 연계 교통 개선 사업이 절실하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 혼잡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약 3.9km 구간에 43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전철이 홍성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청 이용 방문객에 대한 편의

의 제공도 있지만 충남 광역 행정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이다.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립형 지역상권 구축 및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넷째, 민·학·관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홍성군, 청운대,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민·학·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대학 주변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역재 방죽 공원화사업이다. 홍성읍 고암리 일원에 있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지연되어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 홍성읍내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는 있지만 주변 복원정비사업이 늦어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 밖에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용봉산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이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된다.



### ▲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홍성군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홍성읍에 있던 홍성고등학교, 충남개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홍성군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내포신도시가 소재한 홍북면만 증가하고 있고 홍성읍은 감소하고 지역 상권도 침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과 홍성군을 예산군과 함께 지역 행복 생활권의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연계 협력 사업 등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상호 기능연계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또한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도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만큼, 도의 정책개발과 도민의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남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또한 시·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최영화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청양에서 생활정치의 모범을 만들겠다!

약력 : 충남대학교 화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지회 부회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 홍 열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 ▲ 정치 입문 계기?

정치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다.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돈을 많이 벌어서 청양에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학원사업이었고 청양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잘 살고 행복한 고장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후 내린 결론은 '내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사상, 가치관을 펼쳐 보이면 청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문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현재 정치는 나의 생활이 되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청양군민이 주신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

###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은?



충남도의 큰 정책방향인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국가적으로도 FTA가 타결되면서 중국 농축산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농혁신이 도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



직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미미하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고 본다. 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까지 총괄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청양지역에서 '115' 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115' 는 1년에 순이익 1억을 목표로 5번의 워크숍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수입은 얼마 되지 않지만 향후 3~4년 뒤에는 순수익이 1억이 된다면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다. 딸기, 메론, 버섯, 벼, 고추 등 품목별로 젊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젊은 사람을 위주로 팀을 짜서 트레이닝을 시켰다. 마을단위에서 리더가 한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리더와 함께 마을주민이 함께 움직인 것이다.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 ▲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청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은 교육과 문화이다.

큰 도시는 교육 하나만 가지고 변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청양은 교육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양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나 중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 제주도 국제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처럼 말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오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 오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청양만의 가치를 품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교육특구나 문화특구사업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 ▲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나?



현재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비가림, 바닥교체)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오히려 특색이 사라져버렸다.

저는 현대화 사업보다는 60-70년대의 추억의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테마형시장은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직접 할머니가 캔 나물, 집에서 만든 두부 등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이외 추억과 정을 담으로 얻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재 예산대비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실례로 시장상인들에게 화재 보험을 지원한다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등의 세부계획 말이다. 겉모양만 고쳐준다고 될 일은 아니다.

#### ▲ 청양군은 관광산업이 중요한 지역이다.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과제는 무엇인가?

직히 15개 시·군 중에 청양보다 못한 곳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칠갑산, 다른 지역 보다 깨끗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이것밖에 없다.

지난 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가봤다. 거기에 가서 2만 7천명의 화천군이 추진한 이 축제 규모와 컨셉을 보고 너무 놀랐다. 화천은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지만 청양에도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365일 축제만 고민하는 전문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이 열약하다. 산천어 축제를 보며 온 도시의 숙박시설, 음식점이 모두 산천어로 꾸며져 있더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청양도 유명한 고추나 구기자를 형상화해서 청정지역 이미지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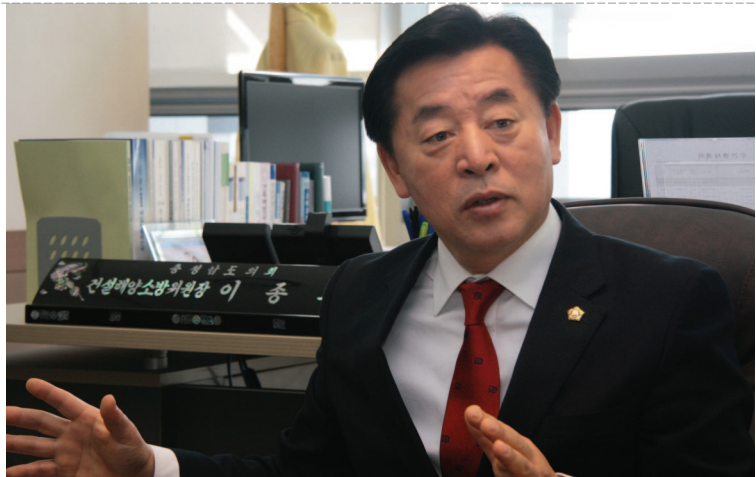
충발연이 전국 단위의 연구기관 중에서 좋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지금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아닌 각 지역의 특징에 맞는 우수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각 시군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개원 20주년의 의미만큼이나 앞으로의 20년이 더욱 기대가 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홍성군민에게 ‘도청 이전 잘 했다’는 칭찬 듣겠다!

약력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청운대 정보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충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청운대학교건축공학과 외래교수,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 제9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현재)10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이 종 화 |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 ▲ 정치 입문 계기?

예전에는 대중앞에서 얘기도 잘 못했고 정치쪽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직장생활하다가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아버님 농장, 과수원 등 일손을 도와드리려고 시골로 내려왔다. 시골에 내려와 지역번영회, 의용소방대, 한국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출마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군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제가 군의원 시절,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된다고 할 때 많은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다. 저도 홍성군의원으로서 홍성으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홍성군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은 ?

제가 속한 상임위가 건설정책국, 해양수산국, 119소방본부 3개가 속해 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곳에 소방본부도 있고 도민의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도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은 119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좀 더 확보하고 물론 사전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테지만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도내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청 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겠다.

### ▲ 홍성군의 가장 큰 장점은?

홍성군은 장점이 상당히 많다. 일단은 역사가 깊다. 경기도 평택서부터 서천까지 공주일부까지 22개 군을 다스리던 홍주목이 있던 곳이다. 목은 요즘 도와 비슷한 거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다.

그리고 역사 인물들도 상당히 많다. 최영 장군,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김복한 선생 등 상당히 의로운 분들이 많고, 고암 이응로 화백, 한국 춤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 등 예술분야 분들도 많다.

천수만 앞에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다. 또한 축산을 많이 해서 질 좋은 한우나 양돈도 풍부하다. 또 일찍부터 환경농업을 시작해서 전국 환경농업의 메카일정도로 농산물이 안전한 좋은 지역이다.

또한 도청까지 이전했기에 성장을 많이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 ▲ 홍성군에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첫 번째는 도청이 이전했으니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데, 도청 인근으로만 인구가 몰리는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홍성군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일정지역에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을 빨리 세워서 도청신도시와 홍성 기존 도시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기관들이 신도시 안으로만 이전하지 말고 기존 도시쪽으로 분산시켜서 이전하게 되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정주조건 구축이다. 우리 소관부서에 있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기관, 병원, 학교 등을 빨리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도 새로 설립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분교를 유치하는 것 또한 내포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더 갖춰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금 더 부탁하자면 우리 충남도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업발굴 등 시·군,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되었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